

근현대사 속의 수의축산 이야기(3)

양 일 석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미군정시대

미군정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45년 9월부터 1946년 3월 29일(부서의 명칭 변경)까지로 미군진주로부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기간이며 일제총독부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당시 일본인 관료의 해임은 여론의 견지에서 바람직하겠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유능한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명목상으로는 일본인들이 추방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제2단계는 1946년 3월 29일부터 1947년 6월3일(남조선과도 정부 설치 전)까지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으로부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까지이며, 일제총독부기구와 미국식 체제를 활용한 기간이다. 이 당시의 계통은 군정장관-부군정장관-민정장관-농무부이었는데 농무부에는 4개의 국(농산국, 산림국, 수산국, 농업경제국)이 있었다(46.12.1 발행 조선연감). 제3단계는 1947년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 공포로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8월) 전까지로 설정한다. 이 당시의 계통은 군정장관-부군정장관-민정장관-농무부이었고 농무부에는 2기에서와 마찬가지로 4개의 국(농산국, 산림국, 수산국, 농림경제국)이 있었다(47.12.1 조선연감).

미군정 시대의 수의축산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치안이 허술하게 되었고 그 동안 소 고기를 먹지 못하였던 국민들은 더러 유유의 밀도살을 행하였다. 그래도 한우는 농사에 이용하여야 하고 개인 소유가 더 많았지만 유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였고 우유 자체를 일본인들이 주로 먹었기에 유유의 밀도살이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군정청이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유우도살 금지령(1945년 9월 21일)이었고 그 후 미군정법령 제140호(1947년 6월 9일) 축우도살제한령을 발표하여 한우의 도축을 제한하여 우량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정20년사(농협중앙회, p556)는 46년 2월 17일 군정청의 농상국(農商局)이 농무국으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달 28

일 농무국 축산과에서 국립낙농목장을 신설하고 낙농8개년계획을 수립발표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농무국 축산과’라 함은 이 무렵 미군정청 직제에서 축산과가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림부의 직제는 축산과가 아닌 축정과로 시작한다(48.11.4).

위생과, 위생국, 보건후생국(수의과), 보건후생부(수의국)

조선총독부 초기 위생 업무는 내무부(府) 지방국 위생과(보건계 업무)와 경무총감부(府) 위생과(위생계 업무)의 2원 체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寺內)는 통치방침으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경찰관과 함께 헌병이 경찰업무를 맡도록 하여, 경무총감에는 주한헌병사령관을, 지방 각 도의 경무부장에는 각 도의 헌병대장을 임명하였다.(naver.com) 즉, 1912년 4월 위생업무를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통일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조선총독부 경찰제도를 개정하여 헌병과 경찰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설치함에 따라 위생과는 경무국 산하가 되었다. 이 당시 경무국 편제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였다. 1926년 4월에는 고등경찰과가 없어지고 도서과가 신설되었다. 이때 위생과의 업무가 보강되었다. 즉, 종래의 업무에 ① 약품 및 매약 ② 아편전매 ③ 수역예방 ④ 이출우검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1938년 1월에는 담당업무가 구체화되어 종두인허원(員)이 종두시술생(施術生)으로, 또한 수역예방이 가축전염병예방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의사 및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1941년 11월에는 후생국(局)이 신설되었는데(그림2) 편제는 보건과, 위생과(경무국에서 이관), 사회과, 노무과였다. 그러나 1개월 후인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1942년 11월 1일(조선총독부 훈령 58호) 기구 개편으로 후생국이 폐지됨과 동시에 사회과, 노무과는 신설된 사정국으로 편입되고 보건과는 폐지되었으며, 위생과는 경무국으로 도로 이관되었다. 이후 경무

국의 직제 개편이 있었으나 위생과(課) 업무는 경무국 직제로 미군정에 연결되었다.(국가기록원, archives.go.kr)

미군정청이 처음 시작한 기구개편은 위생국의 신설이다. 1945년 9월 24일자 미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시대 운영되었던 경무국은 위의 기술서와 같이 위생과에서 의·약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육류 등 축산물의 위생 감독까지 관장하였다. 이러한 막강한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독립된 위생국을 설치(승격)하여(그림4)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서처럼 조선총독부에서는 치안차원의 면에서 경찰계통이 위생업무를 맡아 왔으나 미군정이 시작하면서 독립된 위생기관을 설립하여 그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 보다 1개월 후인 1945년 10월 27일자 미군정법령 제18호로 위생국의 이름을 보건후생국으로 변경 하게 된다. 곧이어 11월7일자 미군정법령 제 25호에 의하여 보건후생국에 수의과(獸醫課)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호 “조선정부 각부서의 명칭”에 의해서 보건후생국은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어, 위생국, 보건국, 실험국이 설치된다(46년5월31일 현재).(이 때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에 한국인이용설이 발령된다) 이 조직은 18개의 국으로 확대 개편된다(46년9월 현재, 조선연감 1947년판, 1946.12.1발행)이 당시의 조직(18개국)에 수의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수의국에는 3개 과인 위생과, 수의과, 방역과의 편제였다. 이 무렵 정부기구가 비대하여 졌다고 논란이 있었던 듯하다. 47.3.19 일자의 동아일보는 ‘행정기구의 축소문제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행정조직기초위원책임자인 신익희씨가 참석하여 군정청부처장과 미국 측과 수 시간 연석회의를 열고 수 시간 토의한 후 부처장중 2사람과 미국측에서 2사람, 입헌의회 2사람 모두 6인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안재홍 민정장관을 추천하여 7인으로 조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후생부(부장,이용설 차장 주병환)의 국 숫자가 10개(총무국, 의무국, 예방의학국, 수의국, 약무국, 구호국, 치의무국, 조사훈련국, 간호사업

국, 부녀국)로 축소되었지만 수의국은 유지되어 있다(조선연감,1948판, 1947.12.1 발행). 조선연감의 편집후기에 “본 연감 자료는 대체로 1947년 8월 말일부터 9월말 현재임을 부연한다”라고 자료의 시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도 중앙기구가 비대하다고 논란이 있었던 듯 47.10.23일자 경향신문에는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기구 개혁성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후생부에는 예방의학국, 의무국, 약무국, 후생국, 구호국의 5개국과 방역연구소, 화학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의 3개 연구소를 들고 있다. 의무국에는 의무과, 치의과, 수의과, 간호과의 4개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에서처럼 이 기사는 안으로 끝난듯하다. 그 당시 시대상황의 혼란스러움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기록으로 남아 인용되기도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농림부 훈령 제1호(1949년 4월8일)는 “남조선과도정부 기구 인수에 관한 건”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수의축산관련 조항은 제3조에 있었다. “제3조 축정국은 다음에 의하여 농무부 농산국 축산과, 보건후생부 수의국을 인수한다. 1. 축정과는 농산국 축산과를 인수한다. 2. 수의과는 보건후생부 수의국을 인수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보건후생부 수의국은 수의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만약 이때 보건후생부에 비록 수의국이 아닌 수의과의 상태라도 의무국에 남아 식품위생을 담당하게하고 농림부 축정국에 수의과(혹은 가축위생과)가 신설되었다면 국민 식품위생과 수의영역의 면에서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수의학교육

1906년 9월 농상공학교(서울 소재)에서 농과가 분리되어 농림학교(2년제)가 설립되었는데(1909년에 3년제로 변경), 농과의 2년차 교과과정에 축산 1시간, 수의대의(獸醫大意) 3시간이 정규교육의 시작이다. 1908년 3월 4일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규칙의 개정으로 수원농림학교에 같은 해 4월 25일 수의속성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수의속성과는 1회 졸업생만 배출하고 다음해인 1909년 4월 10일 폐지되었다. 이 시기가 한일병합 이전이지만 통감부 시절이었으므로 실제적인 행정권한은 일본이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09년 7월 30일 군부의 해체와 함께 무관학교도 해체되면서 군대의 업무는 일본에 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군부에서의 수의정책이나 교육은 일본의 몫이 되었다. 한편 일반가축과 군사용 말이 아닌 일반 말에 관한 수의와 제철공의 일을 관장하는 농상공부에서의 수의는 수요가 극히 적었으며 더욱이 개인 동물병원 개원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었다. 이 무렵의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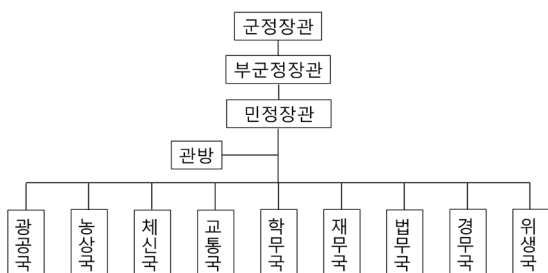


그림4. 주한미군 군정청 내국조직(1945년 10월 15일 현재) (신상준,1977)

〈표 1〉 수원농림전문학교(1944년)입학하여 전문부 수의축산학과(1948)를 졸업한 사람의 교과과정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수신	수신	수신
국어	국어	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물리 및 기상학	사료작물	수의경찰 및 법규
화학	생화학	병리해부학
토양 및 비료	약리학	세균학 및 면역학
작물학	병리학	내과 및 진단학
가축해부학 및 조직학	세균학 및 면역학	전염병학
가축생리학	기생충학	외과학
세균학 및 면역학	내과학 및 진단학	마학
양학	외과학	가축영양학
돈학	산과 및 산과학	축산학원론
가토, 가금, 양봉학	우학	축산제조 및 피혁제조
체조	축산학가론	유·육 및 가축위생
	제철학	체조
	체조	(경제학)
		(임업대의)
		(법학통론)

사 수급상황을 보면 일본에서 수학한 수의사는 검역업무, 축산조합, 경찰조직에서 종사하였으며 군대에서 양성된 수의사는 군수의로 종사하였다. 일반 임상수의를 전부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간간히 시행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상당수 활동하였다. 산업동물 임상을 위한 정규? 수의사는 세월이 훨씬 흐른 뒤인 1949년 10월 4일자 농림부령 제11호로 공수의제도를 확립시행케하여 공무수의사와 더불어 가축진료업무, 방역사업을 기하였다.(미군정 시대에 경남도는 도립가축병원이 설립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군통수권이 일본에 넘어감에 따라 일본군 체제에서 한국학교에서 그것도 한국인 수의사가 일본군 말을 다루어야하는 것이 미답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농상공부에서의 일반 수의는 수요가 아주 적었다. 이러한 사유가인가 1년 만에 수의속성과를 폐지하게 하였고, 수의에 관한 교육은 이리농림(1931)에 수의축산과가 인가될 때까지 미루어진다.

수원농림학교의 설립 당시(1907)는 입학자격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여 다른 지역의 농림학교에서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 (보통학교, 5년 과정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과정으로 변경)로 개칭되었다가 1922년 3월 수원고등농림학교라 하였으며, 수의축산분야 교육은 1937년에 수의축산학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는데, 학교 명칭은 1944년 4월에 다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어 해방을 맞았다. 표1은 1944-48년의 교과과정(수의축산학과)으로 학점 표시가 없어 아쉽지만 수의와 축산의 산술적인 과목수(학년이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간주)를 보면 수의학이 18과목, 축산이 11과목으로 수의에 교육의 비중을 두었으며, 이

당시의 국어는 “내선일체”라는 이름으로 전부 일본어를 가르쳤지만 초창기의 국어는 조선 학생은 일본어를, 일본학생은 조선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일본학생이 조선어를 배운 이유는 현장지도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수의경찰 및 법규가 있음은 위생 업무가 경무국 산하임을 말해주며, 제철학, 마학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또한 체육의 교과목 명칭이 체조임을 볼 수 있다.

일본농림성의 기록(1929~1945)에는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수의사면허취득 상황에는 한국인이 12명으로 되어 있다.(1940<1>, 41<2>, 43<5>, 44<4> 합계 12명) 한편 수원농림전문학교(고등농림학교 포함) 수의축산학과를 졸업(1940.3-49.3의 10년)한 한국인 수는 92명(47~49년 졸업생 62명 포함)이다(이방환, 1990).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전문학교나 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수의사로 활동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1945년 입학생(해방 전이라 4월)과 46년 입학생(미군정이라 9월)은 수원농림 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로 발족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문부 수의축산학과 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1947년 입학생부터 농과대학 축산학과(수원)와 수의학부(서울)로 다른 입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로 출발할 당시의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의축산학과 재학생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문부로 졸업하였으며, 재학생의 일부는 수의학부(4년제) 혹은 전공에 관계없이 서울대학교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여 가기도 하였다.

해방 후의 수의학교육

우리나라 수의학과(대학)의 설립과정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리농림과 이리농과대학(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관계에서처럼 농림학교에서 승격 출발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대학으로 출발한 것이 그 하나이다. 이에 비하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수원농림전문학교(5년제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가 승격되어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수원농림전문학교 1945년 입학생을 포함한 해방 당시 재학생은 졸업장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문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학생들이 수의학부에 입학하려면 학사편입(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 1회 졸업생인 김교현, 이방환, 이장락, 조춘근은 수원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를 졸업하고 47년 9월에 수의학부에 합류, 그리고 윤석봉, 조병울은 수원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 2학년을 수료하고 같은 시기에 수의학부(2학년)에 편입하여 2회 졸업생이 되었는데 47년 9월 신입생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였다.)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리하여 47년 9월10일 개교

식 겸 입학식이 있었는데 서재필박사가 축사를 하고 미군정청 수의장교들이 다수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당시 중등교육의 수업연한이 일정하지 못하여 입학식 후 1년 과정의 예과를 거쳐 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있다. 이 때의 학생부를 보면 1950년 이전에는 성적란에 점수(혹은 A, B, C, D)가 기재되지 않고 학과목명만 기록되어 있어 '학점을 부여한 대'라는 의미를 실감하게 하였다.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 졸업생이 이리농과대학에 입학하려면 수업연한의 차이로 대학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였다. 수의학과가 있는 다른 농과대학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은 대구농림전문학교(대구농림학교와 별도)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서울시립농대는 경성농업학교, 전남대학교 농대는 광주농림학교가 초급대학으로 승격(현재 광주농림학교는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발족 후 재탄생)하여 출발하였는데 비하여, 경상대학교 농대는 진주농림학교가 모체가 아니고 별도로 초급대학(1948.8.14 인가)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해방직후(45~46)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의축산학과에 제직 한 교수는 이근태(축산학, 축산각론), 김용필(병리학, 병리학부), 이용빈(축산학, 가축번식학), 이창희(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임상학), 이종진(가축생리화학), 김정화(해부생리학)로 6명 중 4명이 수의학을 교육하였다.(축산 70년). 이들 중 이근태, 김용필, 이창희, 이종진은 수의학부로 옮겼다.

해방이 되자 갑자기 일본인들이 물러남으로 문제가 된 것이 비단 교육계뿐이었겠는가 많은 수의학 교육에서의 교수 부족은 심각하였다. 생리학의 경우 수의학부가 시작(45년9월)되면서 48년 3월31일까지 강의한 분은 김현규이었다. 그는 북해도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였기에 가축생리학 강의를 맡았으나 재직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수의학부)를 사직하고 결

핵퇴치 활동을 하다 미국(시카고)으로 건너가 결핵연구소에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2006년 작고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김형록이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이웃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과 유대를 가지며 교육(실습)을 하였으나 6.25 동란으로 학교를 떠나 낙향(경주)하여 전원생활을 즐기다 지난해(2014) 작고하였다. 전시연합대학(부산 송도) 시절인 51년4월 이영소가 생리학 교육을 이어 받아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수의학부)의 임상교육은 어떠하였을까? 이창희가 맡았다. 그는 마포수의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국으로 건너가 용정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립(만주국) 훈련소 의무교관으로 근무하다 해방에 발맞추어 귀국하였다. 46.6.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수(임상학, 동물병리학)로 근무하였고, 수의학부가 출발하면서 수의학부로 옮겼으나(당시는 유일한 임상교수)미군정 시대이므로 미군수의사가 학교에 상주할 시기라 주눅이 들어 제대로 말이나 하였을까?

이방환의 회고록에 미군정시대에는 'Blood와 Clark가 수의 임상교육을 도맡다시피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마포수의전문학교 임상교육으로는 자신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듯 49.5.1 국립가축위생연구소(부산)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6.25 전란 중 서울대학교 수의학부의 전시연합대학(송도) 시절에는 수의외과학 강좌를 맡아 출강(수의내과학은 홍병욱)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외과학 교수로 기억되기도 한다(수의과대학 60년사).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사일정은 차곡차곡 진행되었다(표 2). 교과과정에 수의경찰 및 법규, 제철학은 찾을 수 없으며 수의행정, 안과학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수의 임상분야의 발전은 대학에 근무한 분들의 노력도 많았지만 미8군 수의사들이 가끔씩 실시한 강습회가 우리나라 수의임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계속) ▼

〈표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 첫 입학생(1947-1951)의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국어	4	4	체육	1	1	축산학	2		체육	1	1
영어	4	4	유전학		2	병리학및 실습	2	4	교련	4	4
체육	1	1	생화학	3	3	내과학	6	6	축산학	1	1
해부학및실습	4	4	축산학	2	2	외과학	6	6	병리학및 실습		2
조직학및실습	3	3	세균학및실습	4	4	임상학및실습	3	4	위생학		2
발생학	1	1	병리학및 실습	4	4	전염병학	2	4	내과학	2	3
생리학및실습	3	3	약리학	3	3	안과학	2		외과학	2	3
생화학	2	2	진단학및 실습	3	2	수의행정	2		임상학및 실습	5	4
축산학	2	2	전염병학	2					산과학	2	1
독어			기생충학	2	2				전염병학	1	1
									전공실습	2	2
									수의행정		1
계	27	27	계	24	23	계	25	24	계	22	26